

UPASIKA PRAISED CONTENTS

02	발행인 칼럼 김선옥 2023년 새로운 도약, 불교여성광장은 한국불교여성 불법 흥포의 도량 될 터!
04	불교와 여성 박병기 시민보살로서 재가여성불자
06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이영희 삼천사 동출스님
10	108인 기획 인터뷰 전영숙 ‘수행·보시·봉사’를 불자의 기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노숙령 고문
12	문화살롱 최혜경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 김치죽, 김치부침개, 시금치 무죽
14	현장스케치 계미향 불교여성개발원 창립22주년 기념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 학술토론회를 마치고
18	인도성지순례 원유자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행복의 징검다리를 보았다
24	사무국 소식
26	산하기관 센터 소식
29	회원 동정
31	재정동참 현황

우바이예찬

2023년 84호

[발행인] 김선옥 [발행일] 2023년 1월 15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김원숙,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스튜디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150)서울시종로구우정국로45-13수송빌딩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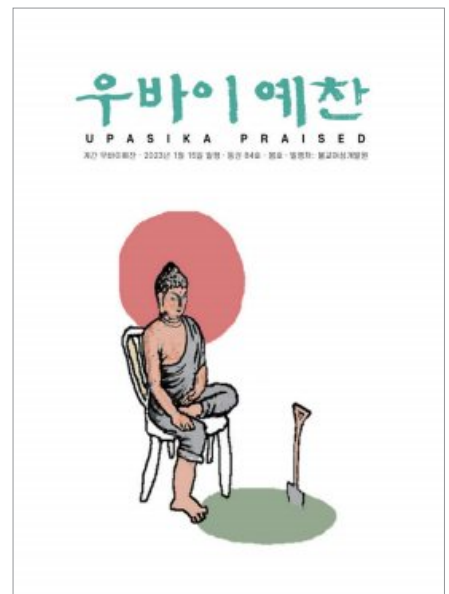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작품설명]

- 작품명 : 가부좌의 한 발을 땅에 내리고 있는 부처를 아십니까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
- 생년월도 : 1996년 저서 『나무야 나무야』 삽화
- 규격 : 알 수 없음
- 작가 : 신영복

[작가프로필]

1968년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으로 재직하던 중 군부독재에 의해 조작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여 년 복역 하였다. 감옥에서 가족에게 보낸 엽서들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출간되어 큰 울림을 주었다.

1989~2014년까지 성공회대학교에서 경제학원론, 중국고전 강독, 교육사회학을 강의하였고 독창적인 서화작품도 다수 남겼다.



2023년 새로운 도약, 불교여성광장은 한국불교여성 불법 공포의 도량 될 터!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 지혜, 광명이 두루 함께 하소서!

삼한사온의 한파에도 봄에 새싹과 꽃을 피울 겨울눈이 움트는 모습을 보면, 한 생애를 관통하는 순리의 힘을 새삼 생각게 합니다. 한 단체를 이끄는 대표로서 가슴이 떨리고 아득할 때에도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한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은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재탄생의 원년이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독립하는 과정에 불거진 여러 혼란 속에서도 저를 믿고 굳건히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전임 원장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과 가족들에게 온몸과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2023년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불교여성광장을 건립하는 귀한 인연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03번지(대지 53평, 175.8㎡)에서 화현될 불교여성광장은 향후 불교여성 교육과 리더 양성,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는 여법한 도량이 될 것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한국불교여성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숙원사업인 불교여성광장은 향후 불교여성의 불법 공포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간 청운동 103번지 매입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현재 건물-수송빌딩 계약 만료일은 2022년 10월 23일이었음)

- 계약일: 2022년 8월 30일(화) 계약금 2억 지급 /- 매매금액: 21억 원
- 잔금일과 금액: 2022년 12월 28일(수) / 19억 원
- 용도변경: 2022년 12월 19일(월)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과 3층은 주택으로 됨
- 은행 대출과 모연금 일부로 잔금 지급, 리모델링 공사/ - 2023년 2월 중 입주 예정

그러나 위와 같이 불교여성광장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조력이 조금 더 필요

합니다. 아직 목표한 모연금 10억 원에 크게 모자란 상태이며 사부대중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만의 공간이 없어 늘 남의 집에 얹혀 떠밀리듯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여성불교, 가족과 우리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는 불교여성 공동체를 향한 모두의 염원이 오롯이 모여 드디어 우리만의 광장 마련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 조계종 포교원장이신 혜충 큰스님을 모시고 달라이라마 존자 친견과 인도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모두의 원력이 모이면 새로운 도량 마련이 꼭 이뤄지리라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인류 평화와 복지증진과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불교와 세계를 바라보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지난 이십여 년의 결과물을 응축해 앞으로는 대내외적인 내실을 더욱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되돌아보면 2022년은 내외적으로 성찰과 성장의 한 해였습니다. 내적으로는 '날란다 독서모임', 지혜아카데미 운영, '자비도량참법' 기도와 반야심경과 법성계 사경 기도 회향 등을 통해 108인과 동참자들이 불법을 나누는 도반으로서 성장하는 기회였습니다. 명상리더십센터를 통해 김홍근 교수님을 모시고 '마음치유와 깨달음' 등을 주제로 연중 배움과 수행을 병행하고,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과 교정교화센터의 사회적 실천과 위즈덤합창단의 문화공연 보시도 운영됐습니다. 특히 불교여성연구소는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학술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사업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과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인 「(양성평등) 알콩달콩-도란도란 가족명상」,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인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남녀노소 시민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을 펼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이자 (사)지혜로운여성의 이사장을 모시고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참신하고 알찬 제언들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재정과 사람이 단단하게 서면 모든 일은 무탈하리라 봅니다. 무주상보시 큰 공덕의 인연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옹비하는 2023년!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의 공간이 될 불교여성광장이 만화하길 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시민보살로서 재가여성불자

우리 시대는 성평등의 시대다.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는 제3의 성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면서, 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넘어 모든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시민윤리를 요청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 남녀 차별과 제3의 성에 대한 경멸의 시선을 유지해온 인류의 역사는 쉽게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유일신 종교가 더 위험한데, 이들 중 상당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이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신의 창조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해석하면서 최소한의 시민윤리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폭력성을 노출하기도 한다.

우리 불교는 어떨까? 이미 붓다 시대에 여성 출가를 허용한 전통 속에서 불교는 역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계율해석의 경직성과 편협성, 관행이 겹치면서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비구니와 재가 불자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붓다가 입멸 후 분열된 상좌부와 대중부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대중부 기반의 북방불교권에 속하고, 이는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화된 21세기 한국불교는 그 전통에 초기 불전인 빠알리 니까야를 완역하여 받아들이면서 외형적으로는 통불교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승불교가 남방의 상좌부불교와 다른 큰 특징은 사부대중공동체와 재가보살의 위상이다. 부처님 당시 승가공동체도 외호하는 재가공동체의 구성원을 수행의 동반자로 인정했지만, 그 중심에 승가가 있었다.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승가의 구성원이 되려면 제3의 성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었고, 여성의 경우에도 백여 개의 계율을 더 수지해야만 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붓다의 여성 출가 허용은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전제 속에서 적극적인 재해석이 요구된다.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수많은 경전의 역사성과 맥락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경전 해석과 새로운 계율의 제정까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자신은 그저 관찰과 명상을 통해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붓다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길이다. 우리 시대의 과학과 사회가 발견해낸 새로운 진리들을 불교적 관점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대승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아우르는 모든 수행자를 보살(菩薩)이라고 부른다. 비록 이 보살이라는 말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점쟁이를 가리키거나 여성불자를 하대하는 승려의 말로 추락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는 보살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보살에는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이 있고, 출가보살은 집과 일상을 떠나 수행에 온전히 몰두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가리킨다고 <우바새계경>에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재가자들은 세속의 장애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계를 제외하면 재가보살은 똑같은 위상을 갖는 이 시대의 수행자이고, 성평등 시대에 여성불자 또한 당연히 온전한 재가보살로서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시민이 주인공인 시민사회이기도 하다. 재가보살과 출가보살이 주인공인 사부대중공동체 역시 시민사회의 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살은 자신이 시민이기도 함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이 '시민보살'이다. 시민보살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여성불자들에게는 더 강한 시민보살로서의 인식과 실천이 요구된다. 여성불자는 불자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사회의 주체인 시민이고, 동시에 재가보살임을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가 되어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불자(佛子)'라는 말은 주로 승가에 종속되어 있는 재가신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본래는 부처님의 제자 모두를 포괄하는 말인데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본래 뜻을 살려가기 위해서도 '시민보살'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출가보살이 지닌 특성, 즉 출가하여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도, 대승불교의 보살로서 재가불자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 자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부대중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 시대 수행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부대중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보살은 동시에 우리 시민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외형적으로는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이루어냈음에도, 내면적으로는 최소한의 시민윤리와 교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의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해야 할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는 야만의 문화를 극복하고, 그들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자비의 눈길과 손길이 우리 시민사회에 절실하다. 이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보살이 지닌 관계 기반의 공감과 연대 능력은 공격적인 경쟁에만 몰두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폭력성을 극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삼천사 동출스님

삼천사(三千寺)는 조계종 직할교구의 말사로서 은평구 삼각산에 위치한 1000년 고찰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울창한 수림과 물이 풍부한 계곡은 경관이 빼어나 이미 여러 등산 탐방로가 나 있고 특히 비봉에서 삼천사에 이르는 계곡은 길이가 매우 길어 여름 피서지로도 유명하다. 『동국여지승람』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절의 규모가 매우 커 3천 명의 대중이 함께 수행했었다고 하며 삼천사라는 이름 역시 여기서 유래되었다. 여러 번의 중창을 거쳐 현 회주스님인 성운화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특히 1979년에 삼천사의 마애여래입상이 천년의 고불임을 입증하여 보물 제657호로 지정받아 문화재 전통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천연의 큰 병풍바위에 부조로 새겨진 석불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둥근 얼굴선과 부드럽게 흘러내린 사라(絲)의 섬세한 조각은 마치 불화를 보는 듯 유려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자연스런 신체의 비례는 온화한 느낌을 주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마애석불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대표적 사찰 조성물인 웅장한 규모의 세존진신사리 9층불탑이나 역시 세존의 진리사리 3과가 모셔져 있는 종형사리탑,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입상이 사찰 경내 곳곳에 모셔져 있고 나한전, 천태각, 산령각 등의 전각도 산의 기슭을 따라 짝지게 잘 배치되어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런 천년 고찰에 불교 문서포교와 불교활동가 지원으로 명망높은 동출스님을 뵈러 찬바람을가르며 산문에 들어섰다. 시리도록 파란 겨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우뚝 솟은 북한산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도량은 청정하기만 했다. 겨울 산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맑음이다. 분주하게 사진을 찍는 손가락이 얼얼하도록 시렸다. 스님은 출가 후 80년 초부터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아 당신 말씀으로는 주마간산이나마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했다 한다. 군사정권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젊은 출가자의 마음을 사회변혁과 현실에 눈을 돌리게 했으리라. 1987년 법주사에서 입승을 살 때도 4.13호헌 반대 데모에 가담하고 직계 선배였던 '정토포교원' 최석호 법사(법륜스님)의 『정토』지 주간과 한국불교사회교육원 기획실장 소임을 살



면서 정확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사회참여적이고 가치지향적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중앙승가대에 진학해서도 승가대 신문기획과 총무 소임을 보면서 처음으로 신문을 흑자경영으로 돌려놓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부당한 사회 현실이나 옳지 않은 그릇된 일에는 목소리를 내왔고 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일해왔다. 일례로 오래전에 지방 MBC에서 조용기 목사가 일요일마다 「행복으로 초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불교를 비방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에 항의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과문을 받기도 했고, 1993년 17사단 횡불사건 당시 중앙승가대 학생회장으로서 항의에 앞장섰고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즉 현대의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가 사회의 순기능과 아젠다를 얼마나 선점하고 실천하고 있는가가 종교의 중요한 의미라 생각했다. 불교가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지역과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대해야 삶 속에 살아있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음을 스님은 40여 년 간의 행(行)으로 구현해온 것이다. 삼천사는 다른 사찰보다 다양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설립을 시작으로 아동복지와 함께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 붓다마을은 300개의 침상을 갖추고 입소 대기자가 100여 명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요양원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고 각현스님께서 운영하시던 의료법인 연꽃마을 안성 파라밀요양병원을 은사스님인 성운스님께서 인수하여 의료법인 인덕원으로 개칭하고 악화된 경영을 개선하여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과 같은 지역복지사업과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구립역촌노인복지관 같은 노인복지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동출스님은 출판포교, 문서포교에도 소명감을 갖고 천착해왔다. 설법연구원이 그 한 예로서, 스님들이 바쁜 절집 살림이나 소임을 살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설법을 펴는 걸 돕기 위해 각 법회에 사용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나 경전의 말씀을 문서로 만든 것이다. 원래는 월간 「법회」라는 간행물이 1980년대 있었는데 폐간되는 바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오연스님이 시작한 설법연구원을 제주도 법화사 시몽스님이 1994년 인수하였다가 결국 1996년 동출스님이 인수하였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설법문안」을 만들어 각 사찰과 스님들에게 보급해왔으나 종단에서 「법회와 설법」을 발행해 스님들에게 발송하자 「설법문안」의 발행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조계종으로 바톤을 넘긴다고 생각



해 2016년 폐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출스님의 문서포교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솔바람출판사로 이어져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각종 불서 제작에 힘을 쏟았다.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불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불교만화,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 『만화 백유경』, 『하수와 고수』, 『만화 불교 이야기 시리즈』 등 총 19권의 만화책을 제작했다. 설법 연구원부터 솔바람출판사까지 『전통사찰총서』 21권 중 1권, 2권, 19권, 20권, 21권, 다섯 권을 추가하여 완간하는 일에 동참했으며 『불교설법전서』 10권 시리즈도 마무리 지었다. 두 곳에서 출간된 도서가 무려 60여 권이나 된다. 스님 말씀대로 ‘이익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한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있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전법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버텨온 힘든 시간들,,, 이제 솔바람 출판사는 문은 닫지 않고 상근직원 없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가동하는 능률적인(?) 운영체제로 돌아간다고 한다. 불교서적을 출판하는 전문 출판사 하나가 깨끗하게 계속 버텨준다니 고마운 마음이다.

이러한 스님의 문서포교와 불교 출판사업은 대내외의 인정을 받아 2010년에 포교대상 특별상 부문에서 설법연구원(대표 동출스님)이 ‘대원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제29회 ‘불이상’(회장 홍라희) 수상자로도 선정되었다.

스님은 스스로도 2001년부터 ‘불교활동가 상’을 제정하여 지원금을 준다. 1994년 조계종단 개혁 전후로 많은 재가불자들의 역할을 지켜보면서 스님은 재가자 없이 불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재가불자, 시민활동가, 외국인스님을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을 수여해왔다. 올해까지 총 67명의 활동가들이 상을 받았고 지원금 총액은 1억5천100만원에 이른다. 8회까지는 스님이 혼자서 상금을 마련하였으나 이제는 스님의 취지에 공감하고 인연이 닿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연하여 상금을 마련한다고 한다. 내년 상



금으로 벌써 1천만원을 약정받았다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동사섭을 행하는 보살이었다. 올해까지 상을 받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67명의 불교활동가와 외국인 스님, 그리고 시민활동가들의 이미 해오던 사업과 새로 이어지고 펼쳐질 새 인연과 새 활동들을 생각해보면 어마



어마한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중증무진의 법계가 펼쳐진 것이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인드라망을 출렁이게 한 것이다. “좋은 일 하는 데 금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열심히 활동하여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름은 ‘불교활동가 상’이지만 불교와 무관한 개인과 단체에게도 시상한다. 스님은 제일 안타까운 분들로 탈북 새터민들과 원폭 피해자 2~3세들을 꼽았다. 여건이 허락하면 종교와 관계없이 이들을 돕고 보호하고 싶다고 한다. 앞으로 스님의 발원에 동참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리라 확신하며 마지막으로 스님의 건강을 여쭙었다. 젊은 시절 건강에 관심을 두지 않아 2009년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투석을 받는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마침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다.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며 삶을 되돌아보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벽 예불에 맞춰 일어나 3백 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삼천사 경내의 계단 총 2000여 개를 수 차례 돌며 공양에도 신경을 써 아침은 과일과 채소 위주로 점심은 일반공양을 하고 저녁 역시 가볍게 드시는 일상의 규칙을 실천하고 있다.

스님은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하며 승가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던 베트남의 故 틱낫한 스님을 가장 존경한다며 이것이 부처님 법에 맞는 것이라 하신다. 그리고 스님과 불자는 부처님법 안에서 역할이 다를 뿐 서로 존경하며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취재진에 인형열쇠고리와 현관에 다는 종을 선물로 주셨다. 준비해 났다가 찾아오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며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 취재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스님의 삶의 궤적과 맥을 같이 하는 시가 자연스레 떠올랐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

※ 참고자료
- 현대불교신문(<http://www.hyunbulnews.com>)
- [불교신문 2714호/4월23일자, [불교신문3022호/2014년7월2일자](<http://www.ibulgyo.com>)
- 출처 : 불광미디어(<http://www.bulgwang.co.kr>)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삼천사(三川寺))

‘수행·보시·봉사’를 불자의 기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노숙령 고문

이번 호에는 제9대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4차 108인, 중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노숙령 전임 원장을 만났다.

노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불자로서 매일 아침 6시쯤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하고 경전을 읽고 잠시 명상에 잠기며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웃으며) 요새는 허리가 아파서 절도 많이 못 합니다. 주로 경전을 읽고 가정과 국가와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해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고 사경을 합니다.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의상대사 법성계를 해왔습니다. 요즘은 화엄경을 16권째 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어깨가 아파서 글씨를 보거나 쓰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봉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봉사를 하십니까?

저로 불자로서 삶의 목표를 수행, 보시, 봉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봉사 경험 중에 3년간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봉사를 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봉사를 하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갈수록 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전부가 할아버지라는 것도 느끼는 바가 적지 않았고요. 전철을 타고 멀리서 점심 한 끼 드시겠다고 오는 분들의 외로움과 무기력한 눈빛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거기서 많이 찾았지만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역사회마다 고령화 시대에 나날이 늘고 있는 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과 교정교화가 필요한 남녀학생들,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들 등 우리 주변을 살

펴보면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능력 있는 몇 사람만 갖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시에 대한 고문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흔히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보시라고 생각하는 데 본래 내 것이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지면 자연스럽게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얻은 것은 당연히 다 내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았지요. 그러다가 정토회의 깨달음의 장에서 3박 4일 합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지도법사의 질문에 10여 명이 한 조가 되어 돌아가며 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때 저는 아상이 무너지는 경험과 나도 없는데 내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새로운 경각심의 눈을 뜨고 큰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그간의 내 모습이 무척 부끄럽고 참회가 있었어요.

요즘은 은퇴한 지도 이미 10년이 넘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지만 매달 들어오는 교직원금을 절약해서 10%는 떼어서 우선 좋은 곳에 쓰려고 하고 있어요. 보시는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와 보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름 그대로 불자 여성들이 불교 발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불자여성들은 기복에 중심을 두고 불교를 믿었습니다. 물론 기복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저희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천 명 이상 모인 집단이 아닙니까? 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진정한 불자 여성으로서 미래를 위하고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가면 좋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단체로서 독립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앞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긍정적인 열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치죽, 김치부침개, 시금치 무죽



입시에서 자유로워진 나를 엄마는 김장 도우미로 발탁하여, 배추를 다듬어 수돗가에 쌓아 놓으라고 특명을 내리셨고, 나는 초록 겉잎을 모두 떼어내는 무지한 실수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그 기억을 소환하고는 이제 잘 할 수 있는데 싶으니 게시지 않는 엄마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이번 호에는 익은 김치를 이용한 간편한 먹거리와 곁들여 이 계절에 식탁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시금치와 무를 이용한 간편한 죽을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김치(깡)죽



재료 | 채수, 익은 김치, 콩나물, 파, 식은 밥(떡국떡), 달걀, 김가루



1. 채수물에 썰은 김치를 넣고 끓인다.
2. 1에 떡국떡을 넣고, 떡이 떠오르면 콩나물, 식은밥, 대파 나머지 재료를 넣어 끓인다.



3. 밥 넣고, 콩나물 넣고 계란은 반숙으로 익을 때까지 끓인다.
간은 국간장으로 한다.

김치부침개



재료 | 김치, 두부, 밀가루, 현미유
1. 김치 1/4 포기당 두부 1모 꼴로 배합한다. 밀가루는 엉길 정도로만 넣는다.



2. 1의 재료를 잘 섞어서 전을 부친다.



3. 바삭하게 구어진 전을 예쁘게 담아낸다.

Tip 밀가루를 조금 넣어야 두부의 고소한 맛이 풍부한 전이 된다, 간이 세면 부침가루를 조금 추가하면 된다.

시금치/무죽



재료 | 멸치 약간, 불린 쌀, 시금치, 무, 들기름, 재래된장



1.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멸치와 씻어 불려놓은 쌀을 볶는다



2. 1에 쌀 양의 다섯 배 물을 붓고 15분 정도 끓인다.



3. 2에 나머지 재료인 무와 시금치를 넣고 뭉근히 끓인다. 겨울 제철음식인 굴을 추가해도 좋다.



4. 재래된장 약간으로 간을 맞춘다.

김치는 비타민이 풍부하다. 채소 생산이 어려운 겨울철에 비타민을 보충해주고 그 부재료가 지닌 다양한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종합보양식품이다. 채소가 주체가 된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이성 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장의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체내의 당류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므로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숙성하면서 늘어나는 유산균은 정장작용을 한다. 주 부재료인 고춧가루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작용을 도와준다. 향산화작용을 통해 노화도 억제한다. 마늘에 함유된 스코르지닌은 스테미너 증진효과가 있다. 아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여 생리대사를 활성화한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은 식욕 증진과 혈액순환에도 좋은 효과를 준다.

김치의 조미액은 김치의 맛을 낸다든지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외에도 미생물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 적정 농도(염도 8~10% 정도)를 유지하면 유익한 균의 활동은 살아나고 유해균의 활동은 억제할 수 있다. (김치의 효능/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참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2주년 기념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 학술토론회를 마치고

불기2566(2022)년 11월 25일(금) 15:00,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2주년을 기념식이 있었고, 이날을 기념하여 불교 교리의 현대적 재해석을 지향하는 불교여성연구소 학술 토론회와 제6회 지혜장학금 지급이 있었다. 학술토론회 주제는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였다.

불교여성연구소는 2022년 4월 1일부터 김진 소장을 중심으로 새로 영입된 연구위원 오기남, 김혜령, 기존 계미향으로 재편되었다. 전생의 인연인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급조(?)된 4명은 4월 4일부터 격주로 월요일 밤 8시에 줌으로 일생의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불교의례 분야는 연구위원 모두에게 너무 생소하였기에 그간 의례에 대해 공부를 해왔다. 우선 『한국불교의 일생의례』(구미래 지음)라는 책을 선정하였고, 주제별로 나누어 오기남이 출생과 관련한 부분을, 김진 소장이 축수의례, 생일의례를, 계미향이 임종과 장례의례를, 마지막으로 김혜령이 제례를 맡아, 각각의 불교의례와 관련하여 책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발표를 하기로 했다.



4월 18일에 오기남이 첫 번째로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제2장 「출생의례, 생명을 품고 낳다」를 정리 발표하였다.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요약본도 원고지 60매가 넘었지만, 오기



남 특유의 빠른 어조와 재치 있는 해석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두 번째로 김혜령도 같은 날 PPT 파일로 정리, 발제해 주었다. 5월 2일에는 김진 소장이 축수의례를 PPT 파일로 잘 설명해 주었다. 5월 16일에는 계미향과 상례 부분을 공부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4명은 줌으로만 만나 “이미 (우리는) 도반이 된 듯합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했던 것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어느 정도 불교의례에 대한 맛을 보자 김진 소장이 2020년 포교원에서 나온 『불자 생활의례』라는 책을 구해서 나누어 주었다. 대부분 스님과 함께 하는 의례이고 분량도 매우 적어, 불교여성연구소 회원들에게는 좀 맞지 않으나 분야별로 참고하기에 좋았다. 5월 30일에 구미래 저자의 책을 끝내고 새로운 준비를 할 때 참고하기로 했다.

유난히 큰 비가 잦았던 지난여름, 7월 13일에 전해진 빅뉴스! 본원 창립기념식 기념으로 우리가 그간 연구해온 내용으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 발표를 해야 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 결론은 ‘하는 데까지 해 보자’였다. 결과물은 큰스님이나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기로 하고, 우리 주장이 공신력을 얻으려면 경전이나 논문, 연구서 등을 참고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히기로 했다. 그래서 『통일법요집』에 나온 가정의례를 참고하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조사도 하였고, 스님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7월 18일에는 김혜령의 발제 후, 의례 전문가 가운데 가장 많은 책과 논문을 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이성운 교수를 모셔 특강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특강 전에 김진 소장은 첫째, 가정의



례를 만들 때의 기준점, 즉 포교원 기준과 (우리가 만들) 편리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안 사이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둘째, 진언을 얼마나 포함시켜야 할지라는 두 가지 질문사항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세미나때 불교의례에 대한 특강도 부탁드렸다.

11월 10일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준비한 토론회가 22주년 창립기념식의 주행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공부나 한다는 기분이었는데,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가장 위험한 사람'인 우리가 행사의 주체가 되어 이들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원의 임원진, 사무국 등 모두 불교여성개발원 광장 마련 비용과 수리, 이사 등에 대한 준비로 경황이 없는지라, 우리 연구소 쪽에서는 이왕 준비한 것,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에 임하고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보자는 취지에서 택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의 부담을 덜게 되고, 그 결과 행사 참여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어차피 연구위원들이 노력한 것을 108인 회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11월 13일에 최종원고를 제출하였고, 김선옥 원장과 김진 소장의 인사말씀 등을 모아 14일에 1차로 자료집 틀을 완성하여 11월 19일 토요일 14시에 지혜실에서 만나 각자 준비해 온 PPT로 시간을 체크하며 최종 리허설을 하고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 소장은 정대련, 원유자, 남동현, 최



경분께 지정토의자 소임을, 전체 사회는 전 영숙 전 소장께 요청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선옥 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 토론회의 성격을 “금년 22주년 행사의 역점은 불교여성연구소의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란 제목으로 이제까지 실생활에서 유교의 의식 중심인 모든 의식들을 불교의 의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4명의 연구위원이 열심히 경전을 찾고 기존 불교의례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의례를 개발한 점”이라고 규정해 주었다.

김진 소장도 인사말씀에서 이 행사의 목적에 대해 “이번 발표는 그동안 저희 연구위원이 연구한 내용을 108인들에게 발표하여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의례를 개발할 수 있도록 108인들의 의견을 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혀, 연구위원들의 의견이 확정되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토론회를 통해 개발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시켜 나간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8명의 발표 내용은 生·老·病·死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기남이 「안태의례, 백일의례, 돌의례」를, 최경분이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 토론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어 김진이 「축수의례, 생일의례, 문병의례」를, 남동현이 「축수·생일 의례, 문병의례안의 적용」을, 계미향이 「임종의례」를, 원유자가 「佛敎의 臨終儀禮 어떻게 생활화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김혜령이 「불교식 가정제사 및 차례」를 발표했고, 정대련이 「불교식 가정의례 중 제례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행사 후 우리는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였고, 원장께서 내주신 금일봉으로 근사한 디저트 가게에도 갔다. 모두 긴장이 풀리고 해방감에 부풀어 다시는 이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 쏟아질 타임인데..... 이 분들 어찌된 일인지, 미숙하지만 일단 발표를 끝내니 흥분하다며, 결과물을 더욱 보완하고 완성시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음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행복의 징검다리를 보았다

혜충 큰스님을 모시고 불교여성개발원 새 보금자리 건립을 위한 첫 해외성지 순례를 떠났다. 아침 8시 일행 31명(1명 이틀 후 합류)이 인천공항에 모여 델리를 경유한 뒤 다람살라로 향하는 성지순례의 첫걸음을 떼며, 과연 인도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은 無二相의 세계일 것인가.

스님은 여행 내내 아침, 저녁 예불은 물론 장기간의 여행에서 오는 멀미와 변비를 염려하여 미역귀와 땅콩, 캐슈넛에, 모직 머플러까지 챙겨주시는 자비심 넘치는 부처님 제자였다. 명실상부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스승이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이번 순례자 32명은 코로나로 룸비니 방문이 어려워 고심하던 중 노인자이사(5차 108인, 다문화봉사단장)의 공덕으로 여름 궁전에 주석하고 계신 달라이 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인도 불교의 전성기였던 아쇼카왕 이래 현대 최고의 불교 전법자가 아닐까. 어려운 망명생활이었지만 항상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지도자다. 나라 밖 어려움 속에서 지도력은 빛났고 티벳인들을 한데 모으고 티벳불교를 세계에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단체 사진도 함께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후 기념촬영

찍었다. 이어 남갈사원 부처님께 참배 후 달라이라마가 직접 운영하는 사미 수련학교의 교장스님께 순례단이 모은 작은 정성을 전달했다. 짙은 자주색 법복을 입은 소년 사미들의 모습이 밝고 발랄했다.

비행기 안에서 히말라야를 내려다보면서 이제까지의 수많은 인연들이 생각났다. 가깝든 멀든 모두 나를 키워주고 덕을 베풀어주었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렇다. 온 법계의 모든 유정 무정의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도와준 것이다. 티베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기도드린다. 아침 길 시크교도의 최대성지인 붉은성도 들렀다.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장점만 모은 종교라고 하는데 모두 머리에 터번을 둘러다. 참으로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인도의 모습이다.



영광의 도시 아그라 성과 불멸의 사랑의 표상인 타즈마할 순례

북인도 관광의 골든 트라이앵글. 야무나 강을 배경으로 철옹성을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 한 올도 깎 수 없도록” 쌓았다. 자스민 타워에서 아들에게 유폐되어 발목이 잘리면 서도 ‘몸타즈 마할로울’을

그리워하였다. 부부간의 일념은 극락이다.

타즈마할은 건축광이었던 샤 자한의 영광과 몰락이 함께 한 건축물로 대리석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색깔을 보여 아침과 한낮 그리고 석양 무렵, 달빛에 따라 다르다.(몸수색을 하니 성냥, 라이타, 반입금지)

왕비는 아마 오로지 샤자한만을 위해서 산 어진 아내였을 것이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오고 있다.

스라바스티 기원정사 그리고 쿠시나가르-위대한 열반의 장소

코살라국의 수도이자 부처님께서 45번의 안거 중 24번을 머무신 곳으로 특히 성도하신지 21년이 되는 해 이후로 가장 많은 하안거를 기원정사에서 보내셨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의 하나인 '금경경'을 비롯해 현전하는 경전의 80% 가량이 이곳 기원정사에서 설해졌다.

우리는 혜충스님의 인도로 법회를 시작했다. 예불과 반야심경, 삼귀의, 청법가, 법문, 사홍서원, 산회가까지 벽차오르는 부처님의 말씀이 몸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열반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 복장에 공양하고 다비장으로 이동하여 기도를 올렸다.



쿠시나가르 부처님 열반상

유마경의 무대 바이샬리의 재발견, 나란다 그리고 라즈기르 왕사성과 죽림정사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인 유마경의 무대다. 부처님은 바이샬리에서 첫 스승을 만나셨고 대가섭을 제자로 맞으셨다. 성도 후 많은 법을 설하셨던 곳이고 마지막 안거와 열반하신 장소로 알려져 있다. 입멸 후 제 2차 결집이 바이샬리에서 열렸다. 부처님 재세 시, 세번째 정사인 대림정사가 있다. 부처님 사리탑, 당대 재가 불자의 거두 유마거사의 집터, 당대 명기 암라팔리의 집터도 있다. 심봉사가 마음의 눈을 뜨니 온 천지의 봉사들이 다 개안하듯 바이샬리의 개벽을 고대한다. 비구니 계단이 탄생된 곳도 바이샬리다. 날란다 대학은 현장, 의정, 혜초 등이 수학했던 당대 最大의 대학으로 5세기부터 12세기 회교의 침입이 있기까지 여러 나라 승려들의 배움터로 동시에 오천 명이 수학할 수 있었다.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지만 날란다 대학에 대한 인도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인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교복을 단정히 입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가득해 미소지며 동양의 참배객인 우리를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촬영했다.



바이샬리

여기저기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이 막혔고 무질서 속에 버스는 중앙선 없이 주행해 오금이 저렸지만 예전같은 노상방뇨는 눈에 띄지 않았다. 역시 공중화장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다.

기원전 5세기 석존 당대 강대국인 마가다왕국의 수도로 출가 후 두 번째 스승을 만난 곳, 부처님 생애 18회의 동안거 장소로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가 세워진 곳이다. 온천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人山人海. 부처님 당시도 이 온천을 이용하시며 정진하셨을 것 같다. 지금은 밀림 속의 휴양처로 대나무숲과 카란다 장자의 연못만 남아있다.

기원전 5세기 석존 당대 강대국인 마가다왕국의 수도로 출가 후 두 번째 스승을 만난 곳, 부처님 생애 18회의 동안거 장소로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가 세워진 곳이다. 온천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人山人海. 부처님 당시도 이 온천을 이용하시며 정진하셨을 것 같다. 지금은 밀림 속의 휴양처로 대나무숲과 카란다 장자의 연못만 남아있다.

부처님 머무시던 독수리 부리 모양의 영축산과 아난존자의 기도처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없이 오르내리고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은 평야 일색인 인도에서 일망무제의 산이다. 부처의 조카로 부처님께 반기를 든 데바닷다가 부처님을 해치려 바윗돌을 굴리고 사나운 코끼리를 풀었다는 영축산에서 혜충스님의 인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시간



영축산에서 일출을 보며 올린 간절한 기도 | 아난존자의 기도처



이었다. 영축산 기도터 위로 법화사상을 흠모하는 일본인이 세웠다는 금박법당이 번쩍거렸는데 마음에, 눈에 거슬렸다. 이천 오백년 이상의 이 기도터에 貪瞋癡의 덧칠이 입혀져 있음이 안타까웠다.

보드가야

먼저 한국 사찰 ‘분황사’를 참배했다. 보드가야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장소이고 200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마하보디 사원과 대탑이 있는 곳이다. 부처님은 극단에 치우친 6년간의 고행을 중단하고 수자타로부터 우유죽을 공양받고 중도적인 수행을 시작하였다. 불교의 4대 성지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곳으로 여겨져 여러 나라의 불교 사찰이 들어서 있으며 많은 순례자들이 찾고 있다.

바라나시

바라나시는 인류사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다. 500년의 유서 깊은 도시로 5000년 전의 모습과 현재가 혼재한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갠지스 강의 화장 풍습과 인도의 전통복장이 간직되어 있다. 장작



바라나시

더미 위의 화장하는 모습을 보며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배 위에서 업장 소멸의 꽃배를 띄우고 물고기 방생을 하며 장례풍습을 십여 건 이상 볼 수 있었다. 부자들만이 갠지스강에서 화장할 수 있다 한다. 諸行無常, 스님들의 다비식 같았다.

사르나트-녹야원

사르나트는 佛法僧 삼보가 완성된 불교의 탄생지로 부처님께서 35세에 성도한 후 최초로 설법을 시작한 곳이다. 고고학 박물관과 迦佛탑을 순례하며 새끼 가진 사슴 대신 자신을 바쳐 보살도를 행하신 부처님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감각적 쾌락에도 고행에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과 탐욕만 제거한다면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팔정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청청히 깨어있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지혜로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한글로 세계 각국의 초전법륜과 함께 쓰여 있었다. 혜충스님께서 조성하셨다. 수희찬탄드립니다.



부처님 나라에서 회향하는 길

강행군이었지만 무사히 인도 성지순례 회향일을 맞이하였다.

순례를 이끄셨던 혜충스님은 우리는 순례자이지 여행자가 아니므로 증득하고 체험하는 순례의 의미를 새기라고 강조하셨다.

순례 중 1달러를 구걸하는 아이들, 청소하는 아줌마, 경비원들 모두에게 마음을 쓰시며 “달라 달라”가 아닌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여 내주는 삶을 살라며 “주라 주라”를 실천하셨다.

혜충 스님과 불교여성개발원 도반들과 함께하는 순례길은 우물 안 개구리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바로 배우는 신심증득의 길이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며 모두를 사랑하리. 

사무국 소식

○정기운영위원회

1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불교여성광장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논의, 리모델링업체 선정 방법, (사)지혜로운 여성 이사장 임기 연임(2023.1-3월 말)에 대해 의결하였다.



○불교여성광장건립 실행위원회

12월 1일 지혜실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잔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대출 확정과 리모델링에 관한 견적서를 검토하였다. 리모델링은 청운동 103번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속히 이행할 건축사 사무실 소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우바이에찬 편집회의

12월 12일 형난옥 편집위원장의 진행으로 84호 편집 회의를 갖고, 회보 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광



고, 센터사업 홍보를 통한 홍보비 분담 안건을 논의하였다.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11월 8일 여성불자108인회(회장 양경운) 각 차수 임원들이 참여하는 차수 임원회의를 열어 불교여성광장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일환으로 11월 23~24일까지 특별 바자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미술작품은 11월 30일까지 지혜실과 자비실에 전시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임원 동국대 대외협력처 후원의 밤 참석

11월 15일 김선옥 원장과 9명은 김애주고문(6대원장, 동국대 대외협력처장)의 초청을 받아 그랜드엠배서더호텔에서 개최한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행안부 공익사업 독서토론회



사무국 소식

11월 2일, 9일 두차례에 걸쳐 자서전쓰기에 참가하여 자서전을 출간한 조명숙 등의 독서토론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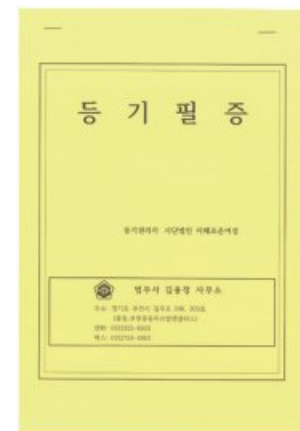
○인도성지순례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12월 10-20일 9박 11일 동안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불교여성개발원 고문 혜충스님을 지도법사로 31명의 순례객은 가는 곳마다 예불과 기도를 통해 신심 고취와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



○불교여성광장건립 잔금 지급 완료

12월 28일 청운동 103번지 불교여성광장건립 8월 28일 계약 후 4개월 만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조정숙 사무국장 불교활동가상 수상

11월 30일 열린선원에서 제19회 불교활동가상 시상식이 있었다. 불교활동가상은 동출스님이 불교 활동가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하여 19년을 이어오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외숙 고문 등 임원들이 참석, 축하하였다.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11월 카타르월드컵 개최를 맞아 원아들이 신체놀이로 팀을 만들어 축구 게임을 하고, 놀이 후에는 공통인형과 블록으로 골대를 만들며 자유놀이를 통해 다같이 한국의 16강을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고등동복지회관

11월 24일 김장철을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국내산 100%로 만들어진 김장김치 3종 세트와 보양식을 함께 전했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여성불자108인회 특별전 전시(회장 양경윤, 5차 108인)

12월23-24일 지혜실과 자비실에서 불교여성광장전립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전(미니 바자)을 개최하였다. 일법스님 미술작품 11점, 이인자고문 사진액자 10점, 정경연고문 고급스카프 7점, 양경윤회장 미술작품 14점, 이정호부원장 미술작품 4점, 이기향님 패션 장우산 20개, 하수경님 미술작품 3점, 황남채 판각글씨 1점, 이영미님 파스타기계, 겨우살이효소, 조정숙(6차)님 이불, 이불깃, 베개 2개, 명주두루마기 1, 속바지 2, 명주술 1, 황치석님 스카프 10점, 박기옥님 보태니컬아트 1점, 이영주 7차 차수장 지인 도자기 3점, 서예 1점, 카페트 1점, 나무장식 3점을 기증하였다. 특히 남동현 7차 차수장은 겨울 모자 33개를 손수 떠서 후원하였다. 집행부의 특별한 노력과 회원들의 기증품 참여, 구매로 1천만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16,368,107원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순이(3차)님은 특별전 이틀 동안 4말의 떡을 후원하여 봉사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다.



5차 108인회(차수장 강미중)

12월 8일 11시 30분 코트야드호텔 2층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7차 108인회(차수장 이영주)

11월 30일 오후 6시 청담 9에서 이영주 차수장과 회원 15명이 참석하여 한해를 평가하고 차기 차수장으로 최희영(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을 선출하였다.



○교정교화센터(센터장 윤덕심, 9차 108인)

교정교화센터는 지난 12월 전국 6개 소년원과 군장병들에게 불교 교양서 1,400권을 전했다.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대산

산하기관 센터 소식

학교(대전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 총 450권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군중특별교구를 통해 전국 오지의 장병들에게 전해질 950권을 발송했다.



책을 후원하신 정인주님(의사)은“소외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공부와 좋은 습관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책마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을 동봉하고 책자 안내문 주제는 1. 5계와 8정도/팔정도 다시보기, 2. 연기/연기법으로 짓는 복 농사, 3. 마음 길들이기, 4. 거룩한 마음가짐/세상에 무거운 짐, 삼독심이다.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박원자, 5차 108인)

12월 6일 오후 2시 자비실에서“깨달음과 마음치유”12강을 수료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처음으로 1월 6일-12일까지 7일 동안 40명이 간화선 집중수행을 통해 일체가 유심임을 알고, 수불스님께서 매일 2회 법문을 해주셨고, 지도법사를 김홍근 교수로 해서“친절한 마음공부 수심결”시즌 3를 거쳐, 9월 6일부터『삶으로 다시 떠오르기』교재로 대면, 비대면으로 79명의 수강생이 함께하여 깨달음과 마음치유 강좌를 회향하였다.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노인자, 5차 108인)

12월 4일 다문화가족 송년법회를 맞이하여 힐링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움직임 명상의 시간을 함께했다. 다과를 나누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한 해 동안의 느낌과 소감을 서로 얘기했고 활기찬 2023년을 기약했다.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진, 2차108인)

11월 25일 연구소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4월부터 준

산하기관 센터 소식

비해은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 학술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학습과 토론을 거듭하며 준비해주신 소장님과 연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즈덤합창단(단장 황경자, 8차 108인)

12월 5-6일 1박 2일로 워크숍을 겸한 나들이를 다녀왔다. 단원 12명은 용문사, 들꽃수목원, 두물머리 그리고 용문사 장날을 구경하며 단원들의 단합과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용문사 대웅전에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찬불가를 올리며 감사와 예경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혜아카데미(팀장 정진희, 3차 108인)

11월 18일 5강에는 오기남(10차) 송암한의원 원장이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한의학」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수강자 모두에게 한약 소화제와 간편 복용 한약 음료

를 후원하였다. 12월 16일 6강은 김양희(6차) 위즈덤 합창단 지휘자가 「노래가 좋아」를 통해 만난 불교와의 인연 이야기와 찬불가를 불렀다. 이어 지혜아카데미 송년모임도 함께 진행하였다.



○날란다독서모임(반장 계미향, 8차 108인)

12월 1일 『티벳사자의 서』 독서모임을 종료하고, 12월 22일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정현채 박사님을 모시고 죽음학 강의를 진행하였다.



○수익사업단(단장 최혜경, 1차 108인)

11월 20일, 27일 2회에 걸쳐 주문받은 김치 530kg을 담궜다. 수익금 681,750원 중에 공간사용료(전기세) 20만원 제하고 남은 481,750원을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으로 후원하였다. 12월에는 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였다.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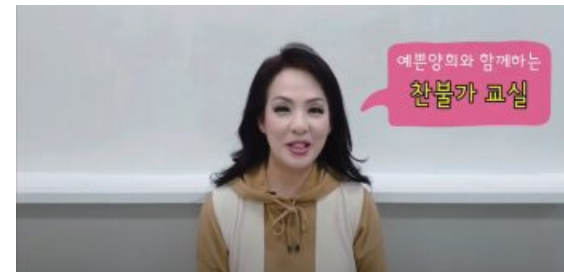
○계미향(8차 108인)

12월 26일 『한국 고대의 천축구법승』을 문헌출판사에서 발간하였다. 책 소개에 따르면 ‘천축구법승’은 경전 원전을 구하거나 학업, 또는 성지순례 등을 위해 천축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 승려를 칭한다고 한다. 날란다 독서모임 반장으로 봉사하며 연구와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김양희(6차 108인)

불교여성개발원 위즈덤합창단 지휘자로 활동중이고 유튜브에 「김양희의 찬불가 TV」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희(9차 108인)

12월 30일 제9회 부산시장국제차문화축제에서 제5대 허황후 차인대상과 한국차인연합회 25년 근속상을 받았다. 허황후 차인상은 AD48년에 김해 가락국 김수로 왕에게 시집온 허황옥이 차씨를 가져와 우리나라 차문화의 원조가 되었음을 기리는 우리차문화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주어진다.



○양경윤(5차 108인)

12월 16-20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제5회 예반전 전시회를 열었다. 지혜아카데미 수료 후 김선옥원장과 회원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다.



○윤소희, 이지현(4차 108인)

10월 13일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불서 10’ 과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 10권에 대상은 윤소희 회원의 『세계불교음악순례』(운주사)가, ‘올해의 불서 10’에 이지현 회원의 『소설 원효』(불광출판사)가 선정되었다.



○이영호(3차 108인)

12월 1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비나눔대축제와 불교사회복지대회 개최일을 맞이하여 복지시설단체운영부분에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총무원장상을 수상하였다.



